

“260세대 늘려달라·평당 2천만원 넘겨달라”...광주시 모두 수용 건설사에 끌려다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市, 중앙1지구 도시계획심의 통과... 고분양가 부추겨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인 중앙공원 1지구(봉암동 일원)에 건립되는 아파트 규모를 '원안보다 266세대 늘어난 2370세대로 해달라'는 우선협상자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또한 원안에서는 임대 및 분양 아파트가 혼재된 동 배치를 추진하다가 돌연 분리 방식으로 변경한 건설사 측 요청도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 측이 3.3㎡(평당) 2046만원이라는 초고분양가를 책정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되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광주시가 '업체 측에 과도하게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심의(중앙공원 1지구) 등 5가지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에서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자인 (주)한양 측은 아파트 건립 규모를 계획보다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애초 최고 높이 지상 25층으로, 38개동에 걸쳐 2104세대를 짓기로 하고 올 2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으나 266세대를 추가 건립하는 변경안을 제출한 것이다.

업체 측은 "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조달 비용(이자 부담)이 사업 제안 당시이던 지난해 5월 추산했던 것보다 800억원 이상 대폭 늘어나 사업성이 떨어진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금융비용 증가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면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2가지 뿐이다. 용적률을 상향시켜줘 더 높게 아파트를 지어 올리게 허용하는 방안과 분양가를 높이는 방안"이라며 "분양가의 경

우 임대 세대인 34평형을 제외한 49·56·58평형은 평당 2046만원으로 짜여있어 더 이상 올리기엔 곤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주 아파트 분양가가 현재 3.3㎡(평당)당 1200만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해당 업체 측이 2000만원대 초고가 분양가를 책정한 것도 모자라 불과 1년여 사이 추가로 260여세대를 짓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광주시가 이를 받아들인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 설명대로라면 그사이 변화된 것은 업체가 주장하는 '금융비용 증가' 하나뿐인데, 업체 하소연으로 용적률이 기존 164.78%에서 199.80%로 상향 조정됐고, 단상에 2600여세대(50평형 기준 1채 10억, 260채 추가 건립)의 엄청난 이익이 건설사에 생겨나기 때문이다.

'임대세대 한군데 몰아넣기' 논란도 있다. 한양 측은 또한 올 2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서는 '전체 아파트 가운데 492세대는 분양(281세대)과 임대(211세대)를 혼재한 블록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임대세대는 246세대만 별도 블록에 건립하겠다'는 변경안을 내놨다. 심의에서 '세대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며 위원들간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와 도시계획위원회는 일부 위원들의 이견을 누르고 한양 측이 변경제시한 2가지 요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 체결을 위한 심의로 이런 방안이 확정되는 단계가 아니다. 아파트 건설 단계에서 주택건설 사업승인 등 여러 심의 과정이 남아있다"며 "내년 7월 1일부로 해제돼 난개발 위기에 놓인 공원을 지키기 위한 과정임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트럼프, 미군기지 반환 관련 "지켜보자"

백악관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구체적 언급은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 내 미군기지 반환 문제와 관련해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로 향하기 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한국 정부의 미군 기지 반환 요청과 관련한 질문에 "글쎄, 우리는 한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고 대답했다.

이에 앞서 한국은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병력기지 등으로 이전 완료했거나 이전 예정인 총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 용산기지의 반환 절차를 올해 안에 개시키로 하고 이런 내용을 미국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발표를 놓고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이후 비판적 입장을 거듭 밝힌 미국을 향해 우리 정부의 불편한 기류를 표출하는 동시에 향후 진행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을 대등하게 끌고가려는 포석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은 일단 한국의 미군기지 조기 반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밝힌 것이라기보다는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쪽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여 향후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미국 국무부를 중심으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현한다"는 비판적인 입장이 공개적으로 표출될 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과 문답에서는 "문(제인) 대통령도 나의 아주 좋은 친구다.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며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2차대전 용서 구한다"

獨대통령, 폴란드서 애도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공군의 첫 기습 폭격으로 민간인 1200여명이 희생된 폴란드 비엘룬을 찾아 용서를 구했다.

1일(현지시간) dpa 통신과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날 폴란드 중부 비엘룬에서 열린 2차 대전 80주년 행사에서 독일어와 폴란드어로 "비엘룬 공격의 희생자들을 애도한다. 독일의 압제에 희생된 폴란드인들을 기리며 용서를 구한다"라고 말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비엘룬에서 벌어진 참사에 대해 아는 독일 국민이 너무 적다고 말하기도 했다.

독일은 1939년 9월 1일 새벽 비엘룬을 기습적으로 공습하면서 폴란드를 침공했고, 이로 인해 2차 대전이 발발했다. 군사적 중요성이나 방어력이 없었던 소도시였던 비엘룬은 순식간에 도시의 75% 이상이 파괴됐고, 이 과정에서 민간인 12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후 5년 넘게 이어진 전쟁 중에 폴란드에선 유대인 300만명을 포함해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600만명 이상이 학살됐다.

이날 행사에서 양국 대통령은 폴란드와 독일의 화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폴란드가 가까이 화해를 추구하려는 의향을 보이고자 하는 위한 항구적 투쟁으로 유럽에서 '철의 장막'을 걷는데 기여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6명이 지난달 31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규탄하기 위해 독도를 방문, 태극기를 들어보고 있다. /연합뉴스

與·무소속 의원들, 독도서 日 수출규제 조치 규탄

日 의원 "전쟁으로 독도 되찾자" 망언 파문

일본의 한 국회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쟁으로 독도를 되찾자는 망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NHK에서 국민을 지키는 당' 소속 마루야마 후다카(35) 중의원 의원은 한국 의원들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자신의 트위터에 "전쟁으로 되찾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라고 적었다.

그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도 정말로 협상으로 돌아오

는 것이냐"면서 "한반도 유사시에 우리(일본) 고유의 영토가 자위대가 출동해 불법 점거자를 쫓아내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선택지를 배제해서는 안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과 우원식·박찬대·이용득 의원, 무소속 손금주·이용주 의원 등 국회의원 6명은 지난달 31일 독도를 방문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규탄했다.

마루야마 의원은 또 전날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가 한국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을 "경박한 퍼포먼스다. 한국에도, 한미일 연대에도 마이너스일 뿐"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일본언어말로 퍼포먼스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마루야마 의원은 "우리(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가 불법 점거자들에게 점거돼 있는 데다 상대측(한국)이 저런 상황(한국 의원들의 독도 방문)"이라며 "각종 유사시에 자위대를 파견해 불법점거자를 배제하는 것 이외에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라고 적기도 했다. /연합뉴스

美 국무부 "北서 답 주는대로 협상 돌입"

北 최섉희 담화에 입장 밝혀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기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최섉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담화와 관련해 북한이 답을 주는 대로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북한이 실무협상 재개에 대한 답을 주지 않은 채 미국 측에 협상 지연 책임을 돌리며 기싸움에 나선 가운데 맞대응을 자제하고 조속한 실무협상 재개 필요성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최 제1부상의 담화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서면질문에 "우리가 밝혀온 대로 우리는 북한의 카운터파트로부터 답을 듣는 대로 협상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7월 중순께 열릴 것으로 기대됐던 북미 실무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미국은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된 상태라며 북한에 조속히 실무협상 재개 시점 및 장소 등에 대한 답을 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가 전날 북한과의 불법 해상 환적에 연루된 대만인 2명과 해운사 3곳

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 것과 별개로 국무부를 중심으로 한 대북 실무협상팀은 언제라도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미국은 협상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부각, 미국 때문에 협상 재개가 되지 않는 것이라는 취지의 북한 주장을 예들러 반박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최 제1부상은 한국시간으로 지난달 31일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의 불량행동'을 거론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을 "비이성적"이라고 비판하며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모든 조치들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떠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조만간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북한은 9월 24일부터 진행되는 유엔총회 일반토의에도 외무상을 보내던 전례를 깨고 대사급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유엔총회를 계기로 북미 접촉 가능성도 일단은 낮아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투자자 모심

- ▶ 입찰할/낙찰된 경매물건
- ▶ 엔피엘(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 현금 3억원이상, 법적 보장
- (주)우천경매, 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부안곰소 토지매매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265-5외 14필
(계획관리지역)

- 줄포·IC·10분거리 해안탐방도로 (현 공사중)
- 곰소염전인접, 내소사 10분, 줄포생태공원 10분
- 조망 : 앞 - 곰소만바다 뒤 - 내변산국립공원

매매가 평당 35만원
면적 약 2만평 분할 가능

리조트·숙박시설·근생
모든 업종 개발 가능

문의 **010-5464-4448(주인)**

2019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971)	광주교육대학교(2071)
모집 / 과정	· 금요일 오전반 2019. 9. 6.(금) 08:10 (초급반)	· 금요일 오후반 2019. 9. 6.(금) 14:10 (중급반)
	· 토요일 오전반 2019. 9. 7.(토) 08:10 (특급반)	· 토요일 오후반 2019. 9. 7.(토) 14:10 (고급반)
모집 기간	2019. 8. 1(목) ~ 9. 7(토)	
수업 기간	2019. 9. 6(금) ~ 2020. 2. 8(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 시간	09:10~13:00	14:10~18:00
수료후 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 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병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교수(3급-사범) 취득기회 부여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773901-01-476736
원서교부 및 접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 의 : 062)950-3582~4 -지도교수(선명관)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 의 : 062)620-4243 -지도교수(선명관) 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농업회사법인 나주농산 농산물 저온창고 임대·보관

■ 콘크리트 신축건물
20평~23평 등
(총 400평)

배·사과·양파 등
임대보관

· 신년서비스 ·
임대료 저렴하게 드림

위 치 나주시 문평면사무소 뒤
연락처 **010-3993-3022**